

우리나라 국민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김무채 · 김정근 · 김지주*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서울시 教育청

A Study on Stress of Primary Students in Korea

Mu Chae Kim, Jong Kun Kim and Gee Ju Kim*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ress causes of the primary students in Korea, through the three major methods, life event score, multiple regression about stress causes and G.H.Q. path-diagram.

A survey was made of 889 students who were selected among students of six primary schools in Seoul and Ka-pyeong, from Sep. 28 to Oct. 2, 199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Life event score

Among the children's life events, <deaths of family> <degrade of school record> <the increase of absence days> <divorce of parents> <trouble with relationship> are high ranking in life event score. Besides, <Decrease of playing and sleeping time> <scolded by teacher and parents> <beginning of extracurricular work> are spread stress causes.

In conclusion, these stress causes are shown by two aspects, home, school, and so children are under stress circumstance in both places.

These stress causes vary with area and sex.

2. Multiple regression about stress causes and G.H.Q.

This study analysed how a stress caused by home life affects the children's health of mind and body.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re <life event score> <possession of joystick> <length of sleeping time> <eating a snack> <joyful school life>, and these factors vary with area and sex.

3. Path-diagram

This study proved that socio-psychological school environment raises children to secede from school, and this secession that operates as a stress cause affects children's health of mind and body. This serial process is analysed by path analysis, and made out a path-diagram.

In conclusion, as expected socio-psychological school environment affects the children's health of mind and body. This is shown by two aspects : positive, negative. This stress causes vary with area and sex.

Keywords : Primary students, stress, life event, G.H.Q.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最近의 靑少年 非行의 增加와 아울러 그 犯罪의

年齡層이 갈수록 내려감에 따라 우리 나라의 靑少年 問題의 對處는 그 限界點에 到達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겠다. 우리 나라는 高度經濟 成長期 以後의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의 進展과 더불어 社

會環境이 크게 變化하여 특히 大都市에서는 生存環境이 극히 나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의 喪失과 함께 親友關係, 居住環境이나 食生活를 비롯한 生活樣式에 큰 變化를 가지고 왔다. 또, 그 동안 教育面에 있어서는 大學入試를 頂點으로 한 過度한 競爭으로 여러가지 問題를 惹起시켰으며 不正入學, 高價의 課外盛行, 學群制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社會問題로까지 發展하여 國家經濟나 기타 國民和合에 커다란 惡影響을 미친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學力主義에 의한 競爭이나 學校의 管理主義는 韓國人의 平均의인 學力の 向上을 가져온 반면에, 어린 學生들의 心身病이나 情緒의 메마름, 家出, 藥物服用 등으로 大學에 入學할 무렵에는 완전히 지쳐서 創意力이 要求되는 여러 學問分野에서 단지 暗記式으로만 해온 學習習慣 때문에 學問發展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로 인한 無氣力한 大學生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靑少年 및 兒童들은 여러가지의 스트레스問題를 發生시키고 있다. 특히 兒童期 및 靑少年期는 急速한 身體的, 情神的 成熟으로 인한 많은 心理的 葛藤과 適應上的 問題占을 안고 있는 時期이다. 따라서, 兒童 및 靑少年들도 日常生活에서 스트레스를 經驗한다는 것은 主旨의 事實이다. 그래서 成人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있어서도 生活過程에서 생기게 되는 스트레스因子나 生活習慣의 비뚤어짐은 健康을 沮害하는 因子로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學校나 家庭에 있어서의 生活上의 스트레스因子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보다 좋은 生活環境, 教育環境을 造成한다는 長期的인 目標로서, 또 지금의 어린이들의 健康障礙를 未然에 防止한다는 目標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한 國家의 未來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간다는 次元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2. 關聯研究的 考察

스트레스에 關한 研究는 大多數 成人을 對象으로 한 것이 많다. 따라서 이들 研究는 兒童이나 靑少年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것을 제대로 提示하지는 못하나 스트레스에 대한 研究의 基本的인 概念들을 提供해 줄 수는 있다. 여기서는 關聯 研究資料의 考察을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基本定義를 내리고, 스트레스를 測定하는 方法과 또 이러한 스트레스가 心身에 어떻게 作用을 하는 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30년대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가 生活記 錄表를 사용한 이래 生活事件은 疾病發生의 促進要

因으로서 關心의 對象이 되어왔다. 1956년 한스 세일리(Hans Selye)는 生活的 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에서 스트레스란 스트레스要因(stressor)에 대한 有機體의 消耗反應(wear and tear)인 比特徴的 反應이라고 하였다. 그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因子 또는 刺戟을 스트레스要因(stressor)이라고 하였으며 肯定的인 스트레스는 Eustress, 否定的인 스트레스를 Distress라고 命名하였으며, 肯定的인 또는 否定的인 事件 모두가 스트레스를 惹起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스티븐슨(Stevens, 1966)은 經驗의 크기를 主觀的으로 決定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精神物理學的 바탕위에 홈스와 라에(Holmes and Rahe, 1967)는 疾病發生과 관련된 스트레스要因으로서의 生活事件의 特性 및 頻度を 患者의 生活經驗을 토대로 體系的으로 觀察 收集하여 43개 生活事件 項目으로 구성된 最近生活經驗表(S.R.E. : Schedule of Recent Life Experience)를 考案하여 生活事件의 概念을 최초로 理論化하였다. 이들 S.R.E.에 포함된 43개 生活事件들은 日常的인 生活樣式과 관련된 事件으로서 傳統的인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象徵하는 社會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事件과 成功 및 成就 등 美國인의 價値觀과 일치되는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事件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누구나 經驗할 수 있는 普遍的인 事件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生活事件이란 個人의 生活樣式的 變化와 適應이 要求되는 事件이며 따라서 肯定的인나 否定的인나 生活事件의 바람직한 면과는 관계없이 再適應에 필요한 時間과 努力의 양에 초점을 두었고 適應이 요구되는 것이 곧 스트레스를 의미하므로 生活事件이란 결국 스트레스를 주는 事件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生活事件의 評價는 주로 成人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兒童의 스트레스要因으로서 生活事件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그 項目이 달라야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딘 코딩턴(R. Dean Coddington, 1971)에 의해서 개발된 國民學校 兒童集團을 대상으로한 生活事件項目을 基本的으로 使用하여 우리 나라 實定에 맞도록 修正하였다. 그리고 兒童의 立場에서 本 學校環境에 있어서의 스트레스因子를 構造化 한 調査를 하였다. 각각의 스트레스 影響의 評價는 우리나라에서는 標準的인 尺度가 없으므로, 一般的 健康에 대한 質問(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등을 參考로 自覺症狀리스트를 作成하여 生體가 나타내는 스트레스 反應의 한 指標로서 使用하였다.

II. 研究方法

1. 對象 및 調査方法

표 1. 調査對象子の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자수 (명)	백분율 (%)
성 별	남자	450	50.8
	여자	435	49.2
학교명	가평국민학교	203	23.1
	중랑국민학교	102	11.7
	백석국민학교	98	1.0
	길동국민학교	96	10.8
	서초국민학교	95	10.7
	효재국민학교	98	11.0
	송곡국민학교	94	10.6
	서빙고국민학교	98	11.1
년 령	11	262	29.7
	12	592	66.7
	13	30	3.4
합 계		885	100.0

本 研究의 測定道具는 主觀的 記述方式을 使用하도록 構成되었으므로, 文章理解能力과 質問答辯能力을 考慮할 때, 國民學校 6年生을 選定하여 調査가 이루어졌다. 本 調査는 1992年 9月 28일부터 10月 2일까지 서울시내의 6個國民學校와 가평군내의 1個國民學校를 選定하여 900名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調査를 實施하였다. 調査結果 不實記載된 경우와 分析에 적합치 않은 경우인 11事例를 除外한 889名의 應答를 分析對象 資料로 選定하였다.

2. 測定道具

本 研究에서 使用한 測定道具는 다음과 같다.

(1) 生活事件點數(LES: Life Event Score)

각각의 學生들에게 6學年 進級後 약 6個月 동안 經驗한 生活上의 事件 有無를 묻고, 經驗이 있다고 한 兒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精神的인 壓迫強度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3段階로 구분하여 그 事件에 대해서 自己評價를 하도록 하였다.

(2) 心身の 呼訴數(General Health Questionnaire)

學生들이 日常生活에서 느끼는 心身の 여러가지 이상증상을 24個의 質問項目을 만들어서 이러한 증상중 呼訴된 症狀數를 合計하여 그 合計點數를 개인의 心身の 症狀數로 使用하였다.

(3) 學校環境의 스트레스度

각 개인이 學校生活에서 느끼는 學校生活의 스트레스度를 基本的으로 3가지의 要因을 바탕으로 하여, 教師와의 關係, 親友와의 關係, 授業 및 學校行事の 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3가지의 要因에서 다시

7가지 細部種目으로 나누어 學校環境의 스트레스度를 測定하였다.

3. 分析方法

여기서는 3가지의 主要分析을 試圖하였다.

(1) 生活事件에 대한 分析

아동들이 느끼는 生活相의 여러 사건들이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誘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生活事件點數(LES: Life event score)를 利用하여 그 生活事件에 대한 스트레스度를 分析하였다. 여기서 生活事件의 점수의 기본틀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별로큰일이 아니었다)=1점, (약간 큰일이었다)=2점, (매우 큰일이었다)=3점으로 그 점수를 주어 경험자의 自己評價에 의한 得點을 基礎로 하여, 各事件에 대한 아동들의 平均得點을 내어, 아동들이 經驗하고 있는 각각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 程度를 算定하였다.

(2) 生活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症狀呼訴에 대한 重回歸分析

아동들이 日常生活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가지 變數들을 중심으로 設問을 作成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變數들이 아동들의 心身健康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日常生活의 여러가지 變數들과 生活事件點數(LES)를 獨立變數로 하고 各 個人の 心身の 呼訴數를 從屬變數로한 重回歸分析을 하여 어떠한 要因들이 個人の 心身健康에 많은 影響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檢査하였다.

(3) 學校環境의 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呼訴에 대한 Path-diagram

本 研究에서는 社會心理學的인 變數들을 採擇하여 이러한 變數들이 아동들의 學校에서의 不適應感을 誘發하고 이러한 不適應感이 나아가서는 아동들의 心身の 健康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패스분석이라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각각의 方法에 의해서 나타난 結果를 가지고 日本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朝倉隆司, 1990)와 比較 分析하였다.

III. 結果 및 解析

1. 調査對象子の 一般의 特性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을 보면 우선 性別에 있어서는 總 應答對象子 889명중 男子가 450명 50.8%, 女子가 435명 49.2%를 차지하고 있다.

學校名에 있어서는 서울의 7個 國民學校와 가평의 1個 國民學校를 선택하였다. 서울의 國民學校를 보면

표 2. 國民學校 6年生의 生活事件의 強度의 程度와 經驗率

생활사건	Mean±S.D.	경험자(율)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2.457±0.716	70(7.8)
성적이 떨어졌다	2.151±0.743	469(52.8)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2.077±0.796	26(22.9)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2.029±0.857	35(3.9)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	2.023±0.825	405(34.3)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	1.974±0.808	189(21.3)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구와 헤어졌다	1.967±0.829	123(13.8)
가족중에서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1.948±0.723	212(23.8)
친구와 절교했다	1.939±0.823	98(1.1)
부모의 싸움이 많아졌다	1.852±0.781	88(9.9)
자신이 큰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다	1.778±0.736	72(8.1)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52±0.780	234(26.3)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48±0.786	258(29.0)
동생이 태어났다	1.675±0.938	35(3.9)
전학했다	1.635±0.747	63(7.1)
학원이나 과외공부의 횟수가 많아졌다	1.530±0.794	117(13.2)
스포츠클럽(야구, 수영 등)에 다니기 시작했다	1.500±0.809	56(6.3)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다	1.475±0.817	59(6.6)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1.460±0.679	396(44.5)
학급이나 학생들의 모임에서 임원이 되었다	1.456±0.690	195(12.9)
노는 시간이 줄었다	1.435±0.683	490(55.1)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혼자 일하러 가시게 되었다	1.343±0.611	70(7.9)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다	1.271±0.528	225(25.3)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되었다	1.256±0.584	82(9.2)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	1.246±0.519	362(40.7)

중량 國民學校 102명 11.7%, 백석 國民學校 98명 11.0%, 길동 國民學校 96명 10.8%, 서초 國民學校 95명 10.7%, 효계 國民學校 98명 11.0%, 송곡 國民學校 94명 10.6%, 서빙고 國民學校 98명 11.1% 이다. 그리고 가평군의 가평 國民學校는 203명의 23.1% 이다.

年齡構造를 살펴보면 本 研究의 대상이 國民學校 6年生이었으므로 一般的으로 만 11세와 12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11세는 262명 29.5%, 12세는 595명 66.7% 였고, 이밖에 10세는 1명의 0.1%, 그리고 13세는 30명의 3.4%이다.

2. 國民學校 6年生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度

經驗된 각각의 生活事件의 強度의 程度를 產出하여, 6學年이 되어서 經驗한 25개의 生活事件에 대해서 強度의 程度와 그 序列을 알 수 있었다. 本 研究에서는 調査對象者의 전체에 대해서 生活事件가 아동들의 心身에 미치는 強度와 그 序列을 살펴본 뒤 가평과 서울, 籃子와 女子의 生活事件의 程度를 살펴보고있다. 우선 전체에 대한 生活事件의 結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은데, 가장 強度가 컸던 것은,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이며, 點數는 최고점수 3점중에 2.457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서 <성적이 떨어졌다>인데 이 事件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強度의 정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경험자도 465명으로 전체 응답자중에서 52.8%를 차지할 만큼 폭넓게 그리고 매우 높은 強度로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觀察되어 진다. 이외에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와 같은 體驗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生活上의 事件이라고 나타났다. 또,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노는 시간이 줄었다>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 등은 그 強度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事件에 대한 경험자수가 매우 많아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因子임이 드러났다. 이상에서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성적이 떨어졌다>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부모와 따로 살게 되었다> <좋아하는 사람(이성)

표 3. 가평군 國民學生의 生活事件의 強度의 程度와 經驗率

생활사건	Mean± S.D.	경험자(율)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2.400± 0.736	35(17.1)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2.375± 0.744	8(3.9)
동생이 태어났다	2.273± 1.009	11(5.4)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	2.194± 0.920	36(17.6)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2.143± 1.009	7(3.4)
성적이 떨어졌다	2.131± 0.717	122(59.5)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	2.116± 0.762	43(2.1)
자신이 큰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다	2.083± 0.900	12(5.9)
가족 중에서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2.016± 0.735	62(30.2)
친구와 절교했다	2.000± 0.816	19(9.3)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구와 헤어졌다	1.950± 0.759	20(9.8)
부모의 싸움이 많아졌다	1.824± 0.809	17(8.3)
전학했다	1.754± 0.754	12(5.9)
스포츠클럽(야구, 수영 등)에 다니기 시작했다	1.750± 0.886	8(3.9)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50± 0.809	40(19.5)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660± 0.798	50(24.4)
학원이나 과외공부의 횟수가 많아졌다	1.529± 0.800	17(8.3)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1.525± 0.656	80(39)
노는 시간이 줄었다	1.437± 0.677	87(42.4)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다	1.375± 0.619	16(7.8)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혼자 일하러 가시게 되었다	1.353± 0.702	17(8.3)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다	1.352± 0.619	54(26.3)
학급이나 학생들의 모임에 임원이 되었다	1.263± 0.601	38(18.5)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	1.243± 0.523	70(34.1)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되었다	1.120± 0.440	25(12.2)

때문에 고민했다)와 같은 높은 點數의 生活事件과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노는 시간이 줄었다>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와 같은 많은 경험자가 있는 生活事件은 모든 兒童에게 중요한 스트레스要因으로 作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日本에서 행하여진 연구(朝倉隆司, 1990)와 比較해 볼 때, 어느정도 그 順位의 構成面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족중 죽은 사람이 있었다>와 같은 사건은 두 지역에서 최고의 점수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日本에서의 研究에서 보면 <수험공부를 시작했다>라는 事件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日本에서는 中學校 入學시 試驗을 치르는 制度가 있어서 이러한 事件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日本의 學生들은 <학급이나 모임의 임원이 되었다> <스포츠클럽(야구, 수영 등)에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事件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日本의 學生들이 느끼는 社會的인 責任이 그 만큼 크게 作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事件들은 모두가 家庭이나 學校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家庭과 學校 모두에서 일어나는 生活 事件이므로 우리가 앞으로의 研究를 進行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두가지 양측면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1) 地域別 國民學生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度

本 研究에서는 지역을 두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兒童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는데 그 지역은 가평과 서울이다. 우선, 가평의 結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여기서도 生活事件의 스트레스도 가장 큰 것으로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이고 그 점수는 2.400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동생이 태어났다> <같은 학년 學生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성적이 떨어졌다>순으로 나타나는데, 이상의 事件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거의 類似한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事件은 生活事件의 點數도 높았고, 경험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험자의 수에 의한 分類에서도 <노는

표 3-1. 서울시 國民學生의 生活事件의 強度의 程度와 經驗率

생활사건	Mean± S.D.	경험자(율)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2.639± 1.018	36(5.3)
성적이 떨어졌다	2.159± 0.753	347(50.7)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2.053± 0.705	19(2.8)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	2.008± 0.835	262(38.3)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구와 헤어졌다	1.971± 0.845	103(15.1)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1.926± 0.874	27(3.9)
친구와 절교했다	1.924± 0.829	79(11.5)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	1.922± 0.774	153(22.4)
가족 중에서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1.920± 0.719	150(21.9)
부모의 싸움이 많아졌다	1.859± 0.780	71(10.4)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69± 0.783	208(30.4)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다	1.753± 0.776	194(28.4)
자신이 큰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다	1.717± 0.691	60(8.8)
전학했다	1.608± 0.750	51(7.5)
학원이나 과외공부의 횟수가 많아졌다	1.530± 0.797	100(14.6)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512± 0.883	43(6.3)
학급이나 학생들의 모임에 임원이 되었다	1.503± 0.704	157(23.0)
스포츠클럽(야구, 수영 등)에 다니기 시작했다	1.458± 0.798	48(7.0)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1.443± 0.685	316(46.2)
노는 시간이 줄었다	1.434± 0.686	403(58.9)
동생이 태어났다	1.375± 0.770	24(13.5)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혼자 일하러 가시게 되었다	1.340± 0.586	53(7.7)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되었다	1.316± 0.631	57(8.3)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	1.247± 0.519	292(42.7)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다	1.246± 0.495	171(25.0)

시간이 줄었다)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와 같은 事件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類似하게 나타났으며, 그 頻度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동생이 태어났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다>라는 事件은 가평균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生活事件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의 結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과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特性은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事件이 높은 點數와 많은 경험자를 나타내는 事件으로 나타났고, 가평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는 事件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평균(농촌)에 비해서 서울(도시)지역의 兒童들에게 있어서 異性的인 問題가 일찍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는 시간이 줄었다>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와 같은 事件들은 높은 頻度の 경험율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간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를 살펴볼 때 나타나는 특징은 가평균(농촌)에 비해서 서울(도시)에서는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事件이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데, 이는 서울 즉 도시지역에서의 兒童이 學校成績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농촌지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強度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性別 國民學生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度

性別 國民學生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度を 살펴 보면, 一般的으로 男子보다 女子에게서 思春期는 일찍 시작되고, 女子들이 日常生活에서 느끼는 事件들에 대해서 보다 敏感한 反應을 보인다. 이번 調査에서 나타나는 特徵은 女子에게서 뿐만 아니라 男子들에게서도 이러한 現象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男女 모두에게서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라는 事件을 높은 點數와 그리고 이와 아울러 경험자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思春期의 시작이 이제는 男女 모두에게서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밖에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사건은 男子와 女子에 있어서 모두 3위, 2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男女 國民學生에 매우 큰 스트레스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는 시간이 줄었다> <잠자는

표 4. 男子國民學生의 生活事件의 強度의 程度와 經驗率

생활사건	Mean±S.D.	경험자(율)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2.486±0.731	37(8.2)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2.222±0.732	18(4.0)
성적이 떨어졌다	2.137±0.743	227(50.4)
친구와 절교했다	2.100±0.871	40(8.9)
좋아하는 사람(이성)때문에 고민했다	2.090±0.825	155(34.4)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2.063±0.772	16(3.6)
가족 중에서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2.017±0.762	118(26.2)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	1.974±0.782	117(26.0)
부모의 싸움이 많아졌다	1.953±0.754	43(9.6)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구와 헤어졌다	1.937±0.867	79(17.6)
자신이 큰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다	1.805±0.749	41(9.1)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36±0.801	140(31.1)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24±0.756	152(33.8)
전학했다	1.600±0.775	35(7.8)
동생이 태어났다	1.591±0.908	22(4.9)
노는 시간이 줄었다	1.590±0.773	249(55.3)
스포츠클럽(야구, 수영 등)에 다니기 시작했다	1.563±0.840	32(7.1)
학원이나 과외공부의 횟수가 많아졌다	1.542±0.786	72(16.0)
잠자는 시간이 줄었다	1.520±0.696	198(44.0)
학급이나 학생들의 모임에 임원이 되었다	1.505±0.720	99(22.0)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다	1.469±0.761	32(7.1)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혼자 일하러 가시게 되었다	1.382±0.604	34(7.6)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다	1.298±0.547	114(25.3)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	1.281±0.553	196(43.6)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되었다	1.231±0.583	39(8.7)

시간이 줄었다)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라는 事件은 그 點數가 높지는 않지만 매우 많은 경험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學父母가 兒童들에 대해서 成績에 대한 負擔感을 많이 주는 結果로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事件이 높은 點數와 많은 경험자를 나타나게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3. 生活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症狀呼訴에 관한 重回歸分析

앞의 生活事件의 스트레스度에서 兒童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要因으로서 家庭生活과 學校生活 모두가 聯關이 있다는 結論이 나왔다. 本研究는 家庭에서의 스트레스因子를 가지고 이러한 因子가 心身の 自覺症狀에 얼마만큼의 影響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重回歸分析을 하였다. 이러한 分析을 위해서 本 調査에서는 16개의 生活上의 事件과 개개인의 生活事件點數를 使用하였다.

그 結果를 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心身の 症狀呼訴의 많음과 相互獨立의으로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서 <생활사건 점수> <가정생활의 즐거움> <놀

이기구의 소유유무> <수면시간의 길이> <간식을 먹는 여부> <학교생활의 즐거움> <아침식사를 매일하는가의 여부> <부모에게 學校生活的 상당여부>라는 變數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變數들은 표준편회귀 계수β의 p값이 5%미만의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사건 점수> <가정생활의 즐거움> <놀이기구의 소유유무>와 같은 變數들은 매우 유의하게(p<0.000) 나타났다. 또, <생활사건 점수>와 <가정생활의 즐거움>의 變數는 그 표준편회귀계수가 각각 0.31498(p<0.0000)과 0.21755(p<0.0000)으로 매우 큰 값이었다. 이러한 結果로 <생활사건 점수>와 <가정생활의 즐거움>은 兒童의 心身の 健康에 대해서 直接的으로 매우 중요한 影響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結果를 가지고 日本의 研究(朝倉隆司, 1990)과 比較를 해보면, <생활사건 점수> <수면시간의 길이> <부모에게 학교생활의 상당여부>와 같은 變數들은 韓國과 日本에서 똑같이 重要な 變數로 나타났다. 그러나 韓國에 비해서 日本의 結果를 보면 韓國에서는 <간식을 먹는 여부> <아침식사를 매일하는가의 여부>등과 같은 營養과 關係되는 變數들이

표 4-1. 女子 國民學校 6年生의 生活事件의 強度의 程度와 經驗率

생활사건	Mean± S.D.	경험자(율)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2.424± 0.708	33(7.6)
성적이 떨어졌다	2.166± 0.745	241(55.4)
學校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2.100± 0.876	10(2.3)
이사를 하게 되어서 친구와 헤어졌다	2.023± 0.762	44(10.1)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	1.986± 0.860	70(16.1)
좋아하는 사람(이성) 때문에 고민했다	1.960± 0.821	149(34.3)
친구와 절교했다	1.857± 0.773	56(12.9)
가족 중에서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1.849± 0.658	93(21.4)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1.824± 0.951	17(3.9)
선생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815± 0.823	81(18.6)
동생이 태어났다	1.769± 1.103	13(3.0)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다	1.759± 0.776	116(26.7)
부모의 싸움이 많아졌다	1.756± 0.802	45(10.3)
자신이 큰병에 걸리거나 크게 다쳤다	1.742± 0.729	31(7.1)
전학했다	1.679± 0.723	28(6.4)
노는 시간이 줄었다	1.676± 0.532	239(54.9)
학원이나 과외공부의 횟수가 많아졌다	1.511± 0.815	45(10.3)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다	1.481± 0.893	27(6.2)
스포츠클럽(야구, 수영 등)에 다니기 시작했다	1.417± 0.776	24(5.5)
학급이나 학생들의 모임에 임원이 되었다	1.406± 0.658	96(22.1)
잠지는 시간이 줄었다	1.398± 0.660	196(45.1)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혼자 일하러 가시게 되었다	1.306± 0.624	36(8.3)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게 되었다	1.286± 0.596	42(9.7)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게 되었다	1.236± 0.506	110(25.3)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작했다	1.205± 0.474	166(38.2)

표 5. 國民學校 6年生의 스트레스 因子와 心身の 呼訴에 관한 重回歸分析

변 수	표준편회귀계수β	p값
생활사건	.31498	.0000
가정생활의 즐거움	.21755	.0000
놀이기구의 소유유무	.12793	.0000
수면시간의 길이	.10632	.0005
간식을 먹는 여부	-.09174	.0028
학교생활의 즐거움	.10363	.0009
아침식사를 매일하는가의 여부	.09171	.0025
부모에게 학교생활의 상담여부	-.08468	.0074

Multiple R=.50979
R square =.25988
F값=36.47408, p값=0.0000

이것은 韓國의 學生에 비해서 日本의 學生들이 學校保健教育을 통한 보다 均衡的인 健康行態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표 5)에서 그 결정계수(R²)는 0.25988이었는데 이는 이들의 係數에 의해서 心身 症狀의 呼訴總數의 變動에 약 26% 정도를 說明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心身の 自覺症狀를 規定하고 있는, 위의 變數외에 다른 變數들이 상당히 內在하고 있다고 하겠다.

(1) 地域別 分析

가평國民學生의 生活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症狀 呼訴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6-1)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신뢰여부>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원이나 기타 강습에 다니는가> <부모에게 학교생활의 상담여부> <라이프이벤트의 점수> <스포츠클럽에 다니고 있는가>라는 變數들이 선택되었다. 이들 項目 모두가 표준편회귀계수β의 p값이 5%미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신뢰여부> 라는 變數는 표준편회귀계수 과 p값이 모두 높아 兒童의 心身健康에 매우 중요한 影響을 미친다고 할

채택된 반면, 日本에서는 <스포츠 클럽등에 다니고 있는가> <귀가 후 집안에서 노는 기회의 많음>과 같은 變數들이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을 하고 있는데

표 6-1. 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呼訴에 관한 重回歸分析(가평)

변 수	표준편회귀계수β	p값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신뢰여부	.30729	.0000
학교생활의 즐거움	.21677	.0028
학원이나 기타강습에 다니는가	-.12819	.0733
부모에게 학교생활의 상담여부	-.19939	.0058
생활사건	.16330	.0221
스포츠클럽에 다니고 있는가	-.15753	.0290

Multiple R = .49580
R square = .24582
F값 = 8.74600, p값 = 0.0000

표 6-2. 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呼訴에 관한 重回歸分析(서울)

변 수	표준편회귀계수β	p값
생활사건	.35851	.0000
가정생활의 즐거움	.20478	.0000
수면시간의 길이	.12563	.0006
놀이기구의 소유유무	.13977	.0001
간식을 먹는 여부	-.11420	.0017
학교생활의 즐거움	.10517	.0044
TV시청시간의 길이	.07965	.0300

Multiple R = .54353
R square = .29543
F값 = 32.94525, p값 = 0.0000

수 있다. 특히 서울에 비해서 가평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신뢰여부> <부모에게 학교생활의 상담 여부>와 같은 부모와의 關係가 兒童의 心身の 健康에 매우 큰影響을 주고 있다는 結果가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생활사건 점수>가 높은 聯關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의 結果를 살펴보면(표 6-2), <생활사건 점수> <가정생활의 즐거움> <수면시간의 길이> <놀이기구의 소유유무> <간식을 먹는 여부> <학교생활의 즐거움> <TV시청시간의 길이>의 順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項目들 또한 표준편회귀계수β의 p값이 5%미만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사건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의 兒童들이 가평의 兒童들보다 生活上의 事件에 대해서 더 많은 影響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

표 7-1. 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呼訴에 관한 重回歸分析(男子)

변 수	표준편회귀계수β	p값
생활사건	.41914	.0000
가정생활의 즐거움	.23191	.0000
귀가 후 집안에서 노는 기회의 많음	-14420	.0014
간식을 먹는 여부	-.12951	.0044

Multiple R = .54133
R square = .29304
F값 = 36.58034, p값 = 0.0000

표 7-2. 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呼訴에 관한 重回歸分析(女子)

변 수	표준편회귀계수β	p값
생활사건	.26881	.0000
가정생활의 즐거움	.17576	.0003
수면시간의 길이	.16224	.0006
놀이기구의 소유유무	.14110	.0026
학교생활의 즐거움	.12034	.0115
TV시청시간의 길이	.11852	.0122
아침식사를 매일하는가의 여부	.10148	.0341

Multiple R = .49794
R square = .24794
F값 = 16.81372, p값 = 0.0000

울에서 나타나는 特徵은 이러한 變數들의 構成이 家庭生活에 密接한 聯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가평보다 서울의 兒童들이 放課後 家庭내에서 노는 경우 많다고 할 수 있고, 그와 아울러 兒童들의 生活上에서 家庭이 미치는 影響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變數에 의해서 설명되는(R²) 心身の 症狀呼訴수의 변동은 가평에 있어서는 약 25% 그리고 서울에 있어서는 약 30%이다.

(2) 性別 分析

性別 國民學生의 스트레스因子와 心身の 症狀呼訴에 관한 結果는 아래의 (표 7-1, 2)와 같은데 우선 男子의 結果를 살펴보면, <생활사건 점수> <가정생활의 즐거움> <귀가 후 집안에서 노는 기회의 많음> <간식을 먹는 여부>와 같은 變數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結果가 나왔는데, 특히 <생활사건 점수>는 그 표준편회귀계수β가 0.41914(p<0.0000)으로 매우 높은 聯關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男子의 경우 女子보다 한층 生活上의 事件이 강한 스트레스因子로 되어서, 主觀的인 健康에 대한 큰 影響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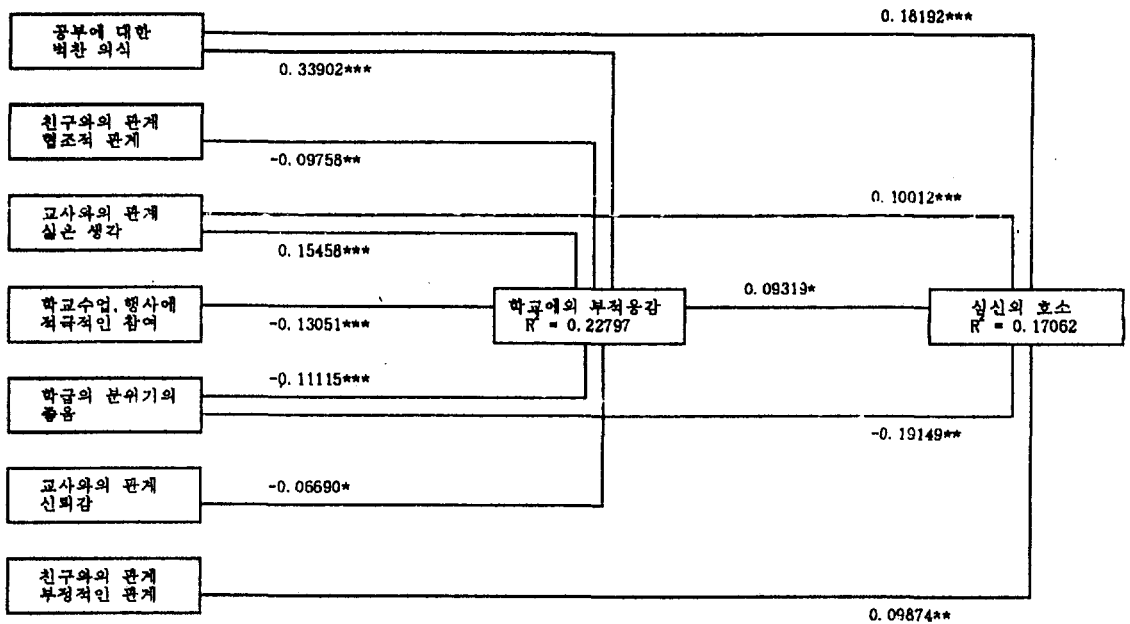


그림 1. 국민학교 6년생의 학교생활과 스트레스에 관한 패스-다이아그램.
 화살표 위의 숫자는 패스계수이고, * $p < 0.05$, ** $p < 0.01$, *** $p < 0.001$.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女子의 결과를 보면, <생활사건 점수> <가정생활의 즐거움> <수면시간의 길이> <놀이기구의 소유유구> <학교생활의 즐거움> <TV시청시간의 길이> <아침식사를 매일하는가의 여부> 등의 變數가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활사건 점수>는 男女 모두에서 가장 影響을 많이 주는 變數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生活上의 事件들이 兒童들의 心身の 健康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變數들 모두 표준편회귀계수 β 에 대한 p 값이 5%미만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變數를 使用한 重回歸分析에서 說明되는(R^2) 것은 男子 약 30%, 女子 약 25%로 그 說明力이 그렇게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4. 學校環境 스트레스에 대한 PATH-DIAGRAM 모형

아동의 視點으로부터 學校環境의 社會心理學的인 스트레스因자를 알아내고 이를 構造化한 것이 아래의(표 8)이다. 여기서는 3가지의 큰 領域과 7가지의 細部項目 그리고 26개의 設問項目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領域에서 나타내는 項目들은, 心理的인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精神健康 뿐만 아니라 肉體的인 健康에 影響을 미친다는 既存의 研究(한창환, 1992)

에서 着想하여, 이러한 學校環境의 社會心理學的인 스트레스要因들이 아동의 心身健康에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檢査하는데 있어서 패스分析이라는 統計的인 方法에 의해서 살펴보았고,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그림 1)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공부에 대한 비판의식> <교사와의 관계에서 싫은 생각>의 變數는 學校生活의 不適應感을 통해서 心身の 症狀呼訴에 間接的으로 높이는 效果가 있는 同時에, 直接的으로도 心身の 症狀呼訴를 일으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라는 變數는 直接的으로 心身の 症狀呼訴를 높이는 役割을 하고 있다. 반대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협조적인 관계> <학교수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학급분위기의 좋음>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라는 變數들은 學校生活의 不適應感을 줄이는 버퍼(buffer)效果를 지니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心身の 症狀呼訴數를 줄이는 役割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협조적인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감>들의 變數들은 學校生活의 不適應感과 心身の 症狀呼訴를 說明하는데 있어서 그 影響力은(각각 說明力이 0.09758, 0.06690, 0.09874) 약하다고 생각된다.

(1) 地域別 패스-다이아그램

표 8. 兒童들에게 미치는 心理社會學的인 學校環境의 構造의 要因

영역	구조적 요인	질문항목
교사와의 관계	싫은 생각	선생님의 편애로 싫은 생각을 한 일이 있는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상처를 받은 일이 있는가 선생님께 자주 야단을 맞는가 선생님은 당신이나 학급의 모두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가*
	신뢰감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되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나 노력한 결과를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 있는가
친구와의 관계	부정적인 관계	친구에게 구박 받은 일이 있는가 친구로부터 무시 당하거나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 친구로부터 놀림을 받는다는지 욕설을 들은 일이 있는가 친구들과 자주 싸우는가
	협조적인 관계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당신에게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놀니까 친구와 같이 어울려서 공부(숙제, 시험공부)를 합니까
수업 및 학교 행사의 일	공부에 대한 벽찬의식	수업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수업중 곤란을 당했다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심하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수업중 선생님께 지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낀 때가 있는가 특히 싫은 과목이나 벽찬 과목이 있는가 당신은 학교의 수업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수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는가
	학급의 분위기 좋음	지금 급우들과 사이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의 성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판단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있는가
	적극적인 참여	운동회 등의 행사에 자진해서 참가하고 있는가 학교의 위원이나 학급의 위원이 되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니까
학교에의 부정응감		당신에게 있어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표시는 특점이 구조적 요인의 항목에 질문이 반대되는 항목으로 그 점수가 반대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學校環境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國民學生들이 받아들이는 程度와 그 變數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本 研究는 서울시 國民學校와 가평군의 國民學校를 대상으로 해서 각 地域別 國民學校 6年生의 學校生活와 스트레스에 관한 패스-다이아그램을 그려보고 이것에 대해서 分析을 하여 보았다. 그 結果는 아래와 같다.(그림 2-1, 2).

우선 가평군의 國民學校 6年生의 學校生活와 스트레스에 관한 結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공부에 대한 벽찬의식>이 學校에서 不適應感과 心身의 症狀呼訴에 가장 큰 作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평군의 國民學生의 特徵으로 나타나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가 學校生活의 不適應感과 心身의 症狀呼訴와는 그렇게 유의한 關係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서 우리는 가평

군의 國民學生들은 친구와의 關係라는 要因들은 어느 정도 만족한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반면에 서울지역의 國民學生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라는 變數를 제외한 거의 모든 要因들이 學校에 不適應感이 心身의 症狀呼訴에 좋은 方向으로 나쁜 方向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도시 지역의 國民學生들이 學校環境에 대해서 농촌지역보다 더 많은 影響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지역 모두가 <공부에 대한 벽찬 의식>과 같은 變數는 그 影響力이 學校에의 不適應感과 心身의 症狀呼訴에 매우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와 아울러 학급의 霧圍氣라던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兒童들에게 중요한 學校環境의 社會心理學的인 스트레스로 作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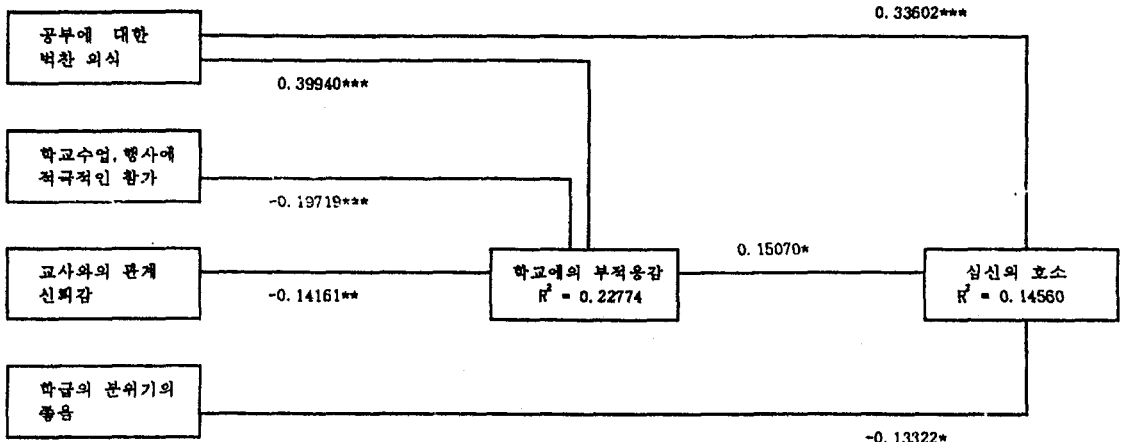


그림 2-1. 가평의 국민학생의 학교생활과 스트레스에 관한 패스-다이아그램.
 화살표 위의 숫자는 패스계수이고,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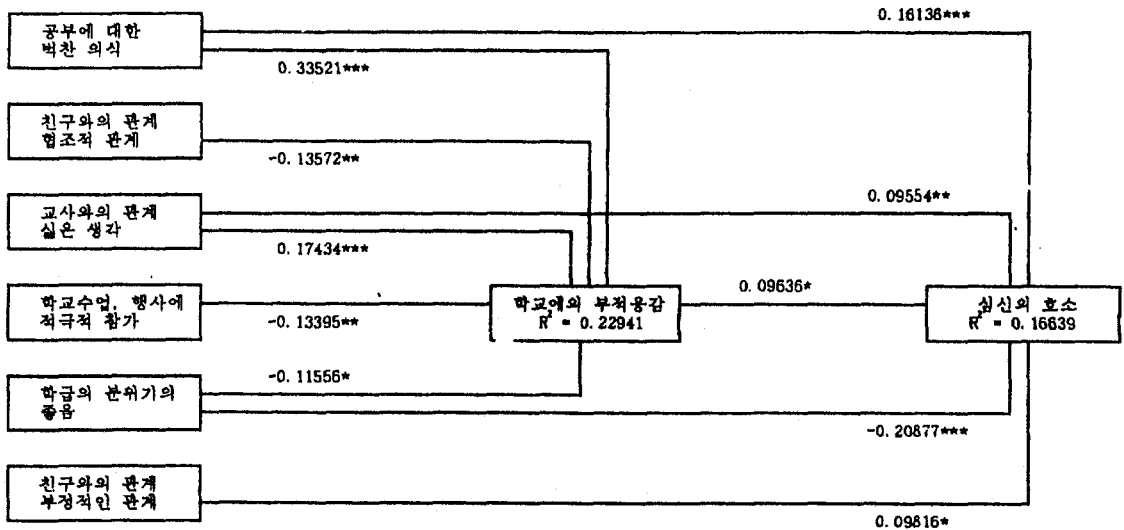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의 국민학생의 학교생활과 스트레스에 관한 패스-다이아그램.
 화살표 위의 숫자는 패스계수이고, *p<0.05, **p<0.01, ***p<0.001.

(2) 性別 패스-다이아그램

女子의 경우 男子보다 思春期 더 일찍 시작된다. 그래서 國民學校 6學年の 女學生들은 男學生보다 더 早熟한 것이 事實이고 이와 아울러 學校生活에서의 環境들이 男子의 경우보다 女子에게 더 많은 心理的인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學校生活의 스트레스要因도 다르게 될 것이다. 本研究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分析結果가 나왔고, 그러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그림 3-1, 2) 우선 男子의 學校環境 스트레스를 보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싫은

생각> <공부에 대한 벽찬 의식>이라는 변수가 學校에의 不適應感과 心身の 症狀呼訴에 直接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그 強度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와 같은 變數는 直接的으로 心身の 症狀呼訴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학급분위기의 좋음>의 變數는 直接間接的으로 學校에의 不適應感과 心身の 症狀呼訴에 대해 制御役割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 이러한 制御作用을 하는 要因으로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감>등과 같은 變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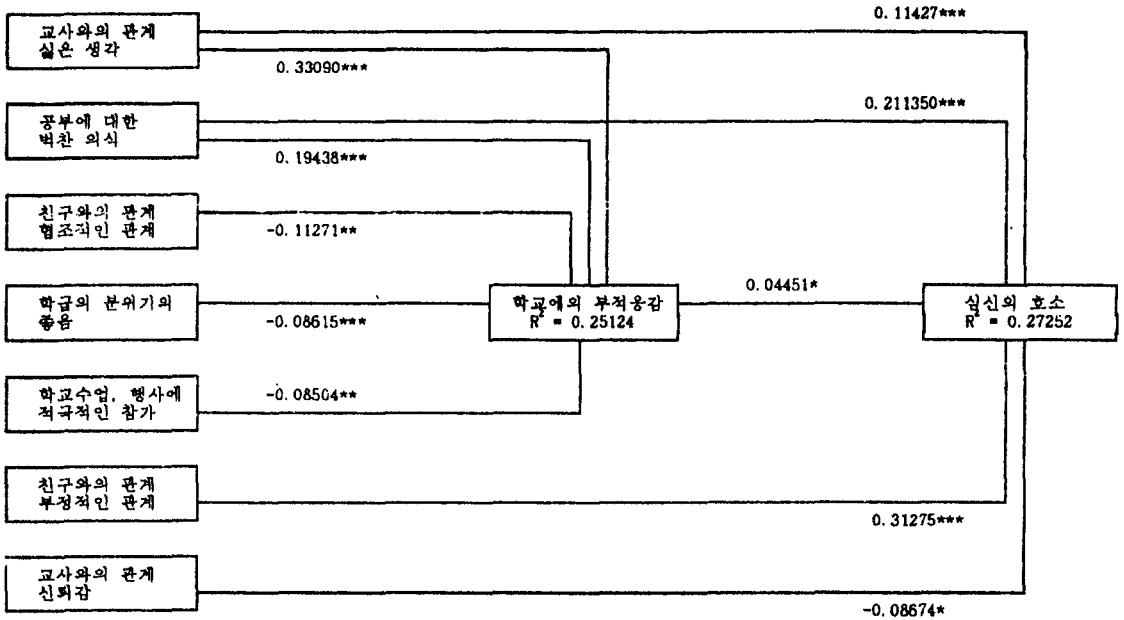


그림 3-1. 남자 국민학생의 학교생활과 스트레스에 관한 패스-다이아그램.
화살표 위의 숫자는 패스계수이고,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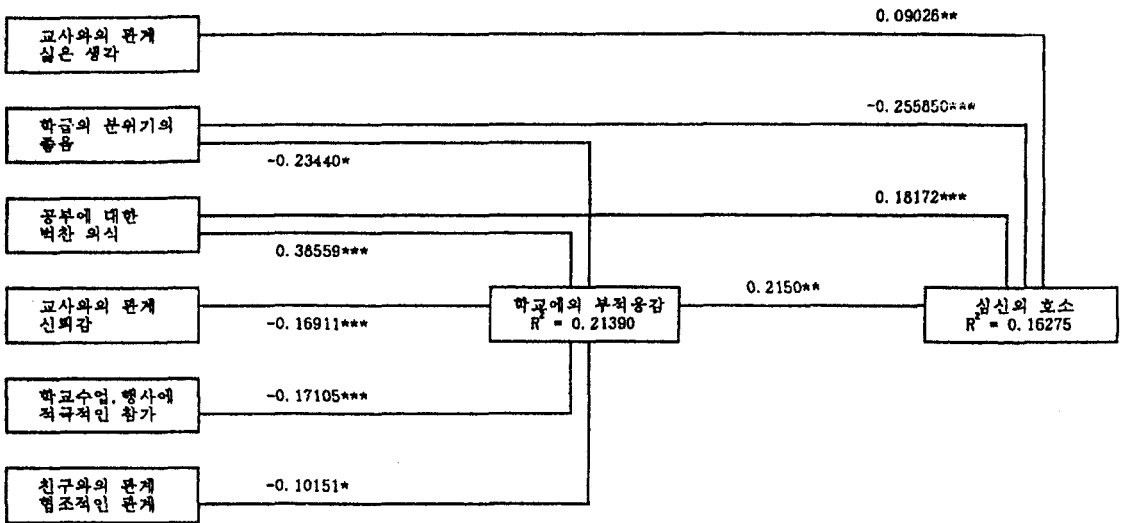


그림 3-2. 여자 국민학생의 학교생활과 스트레스에 관한 패스-다이아그램.
화살표 위의 숫자는 패스계수이고, *p<0.05, **<0.01, ***p<0.001.

들 수 있다.

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학교에의 불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싫은 생각>이라는 변수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공부에 대한 벽찬의식>이라는 변수

가 학교에서 불응감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밖에 <학급의 분위기의 좋음> <교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감> <학교수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친구와의 관계에서 협조적인 관계>와 같은 변수들은 학교에의 불응감과 심신의 건강에

대해 모든 좋은 方向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結果를 얻었다. 그러나 學校에의 不適應感과 心身의 健康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들은 男子의 경우보다 女子에게 더 큰 影響力을 미친다는 結論이 나왔다.

I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은 1992年 9月 28日부터 10月 2日까지 서울시내의 6個 國民學校와 가평군내의 1個 國民學校를 對象으로 選定하여 900名을 研究對象으로 하여 學校와 가정生活에 關係된 여러가지 變數들을 使用,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兒童들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生活事件들 중에서 <가족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다> <성적이 떨어졌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 <부모가 따로 살게 되었다> <좋아하는 사람(이성) 때문에 고민했다>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구박(괴롭힘)을 받게 되었다>라는 같은 順序로 兒童들의 立場에서 매우 큰 事件으로 간주되었으며, 또한 <노는 시간의 감소> <수면시간의 감소> <부모와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경우>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事件들은 그 경험자가 매우 많아 兒童에게 있어서 하나의 스트레스로 作用한다는 事實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要因들은 家庭이나 學校모두에게 나타나는 事件들로서 兒童들이 學校나 家庭에서 많은 스트레스 環境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要因들은 地域마다 그리고 性別로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兒童들의 家庭生活의 스트레스要因들이 心身의 健康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分析을 해보았는데, 가장 많은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 <생활사건 점수> <가정생활의 즐거움> <놀이 기구(전자오락기구, 인형) 소유유무> <수면시간의 길이> <간식을 먹는 여부> <학교생활의 즐거움> 등이었는데, 이러한 要因들은 地域別, 性別로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지역별 차이로는 서울의 學生들은 家庭生活에 있어서의 變數들이 많이 作用을 하였고, 가평군의 學生들은 學校나 기타 外部環境에 의한 影響力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의 兒童들이 농촌의 兒童들보다 家庭에서의 生活時間이 더 많기 때문에 家庭의 役割이 그만큼 重要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性別 差異를 보면, 女子는 男子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 要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變數들이 心身의 健康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結論이 나왔는데, 그만큼 女子가 男子보다 感受性이 높고, 思春期가

빨리 오는 原因으로 보아진다.

셋째, 社會心理學的인 學校環境이 兒童들에게 學校에 대한 不適應感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不適應感이 學校生活의 스트레스要因으로 作用하여 心身의 健康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假定下에 이러한 一連의 過程을 패스分析이라는 方法을 使用하여, 패스-다이아그램을 作成하였다.

그 結果를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學校環境의 社會心理學的인 要因들이 兒童의 心身健康에 影響을 미친다는 結論이 나왔고, 이는 否定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것과 肯定的을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 나눌 수 있다. 否定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因子로서 <공부에 대한 벽찬 의식> <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 <교사에 대한 싫은 생각>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도 <공부에 대한 벽찬 의식>이라는 因子가 가장 큰 原因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肯定的으로 役割을 하는, 다시 말해서 兒童의 心身健康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要因으로서 <학교수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학급분위기의 좋음> <친구와의 협조적인 관계> <교사에 대한 신뢰감> 등의 變數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學校環境에 대한 스트레스는 地域別, 性別로 차이가 있었는데, 地域別로는 농촌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因子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도시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로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이는 농촌의 兒童들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하기 보다는 도시의 兒童들이 친구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精神的인 負擔感을 가지고 있다고 解釋할 수 있다. 性別 차이를 보면, 男子의 경우 學校에의 不適應感과 心身의 健康에 가장 否定的으로 作用하는 것이 교사에 대한 싫은 생각, 친구와의 否定的인 관계로 나왔고, 女子의 경우는 이 보다는 學級雰圍氣의 좋음, 공부에 대한 벽찬 의식이라는 變數로 나왔는데, 이는 男子가 女子보다 學校에서나 동네에서의 친구관계의 폭이 넓어서 그렇다고 생각되어 진다.

參考文獻

1. 고병학 : 한국인의 生活事件에 관한 예비적 研究-I. 生活事件 척도. 충남의대잡지, 7(2), 17-31, 1980.
2. 고성희 : 生活事件 研究에 대한 비평적 分析. 대한간호, 23(2), 49-63, 1984.
3. 조 회 : 看護學生의 스트레스事件과 適應行動에 관한 研究. 적십자간호전문대학논문집, 5, 93-106, 1983.
4. 조 회 : 看護學生의 스트레스 程度에 관한 調査研究. 적십자간호전문대학, 4, 137-155, 1982.

5. 이정숙, 조길자 : 高等學校 3학년 學生들이 경험하고 있는 生活變化事件과 그 척도. *중양의학*, 43(2), 1982.
6. 이평숙 : 生活事件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적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7. 이평숙, 임현빈 : 스트레스 事件과 적응행동이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研究. *대한간호학회지*, 10(1), 57-63, 1980.
8. 백기청 : 스트레스要因으로서의 生活事件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9. 이민규, 김순화, 금명자 : 스트레스 그 원인과 대책. 서울, 중앙출판사, 1985.
10. 이정균 :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pp.491-492, 508-510, 1986.
11. 한창환 : 스트레스와 정신장애의 생물-정신사회적 모델. *인간과학*, 16(8), 1992.
12. 조창강사 : 일본 國民學生의 정신적 스트레스-2가지 타입의 조사연구로부터-.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1990.
13. Holmes, T. H. and Rahe, R. H. :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 Psychosom. Res.*, 11, 213-218, 1967.
14. Lazarus, R. S. and Cohen, J. B. : Environmental stress. In Altman, I., Wohlwill, J. F.(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lenum, 1977.
15. Donovan, R. : Stress in the Workplace :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ractice. *Social Casework*, pp. 259-266, 1987.
16. Appley, M. H. and Trumbell, R. (Eds.) : Psychological stress. Issues in research. N.Y. Appleton-Century-Crofts, 1967.
17. Folkman, S. :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1984.
18. Bell, J. M. :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illness and - wellness behaviors. *Nursing Research*, 26(2), 136-141, 1975.
19. Coddington, R. D. :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 of children-II. A study of a normal population. *J. of Psycho. Res.*, 16, 205-213, 1972.
20. Gong-Guy, E. and Hammen, C. : Causal perception of stressful events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outpatients," *J. of Abnormal Psychology*, 89, 662-669, 1980.